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업종일등 ESG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80% 수준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ESG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 기업의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인 환경문제(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67억 원

-모투자신탁 70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종류형, 모자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2015년 12월 11일 모자형 전환)

설정일

(운용펀드 : 2005년 01월 18일)

- 클래스 A : 2014년 08월 05일
- 클래스 A-E : 2014년 08월 08일
- 클래스 C : 2010년 07월 26일
- 클래스 C-E : 2013년 08월 19일
- 클래스 C2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3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4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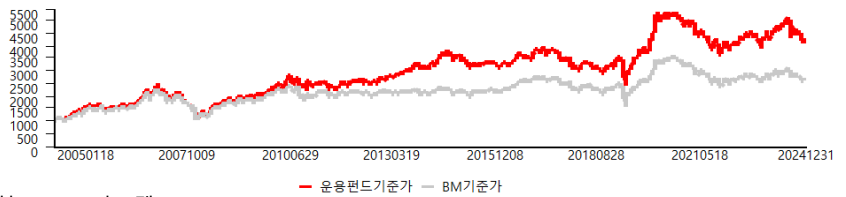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02%	-5.35%	-16.10%	-6.22%	10.57%	-15.21%	24.13%	323.46%
클래스 A	-0.12%	-5.76%	-16.82%	-7.82%	6.91%	-19.48%	14.02%	12.62%
클래스 A-E	-0.08%	-5.65%	-16.64%	-7.41%	7.86%	-18.38%	16.60%	18.45%
클래스 C	-0.17%	-5.90%	-17.08%	-8.38%	5.65%	-20.91%	10.66%	52.76%
클래스 C-E	-0.13%	-5.78%	-16.87%	-7.92%	6.69%	-19.73%	13.46%	33.82%
클래스 C2	-0.16%	-5.87%	-17.03%	-8.25%	5.94%	-20.60%	11.65%	43.20%
클래스 C3	-0.15%	-5.83%	-16.94%	-8.10%	6.23%	-19.53%	-	-24.15%
클래스 C4	-0.14%	-5.81%	-16.93%	-8.04%	8.28%	-	-	7.43%
클래스 C5	-0.13%	-5.78%	-16.87%	-7.92%	6.69%	-19.73%	13.47%	50.52%
벤치마크	-2.30%	-7.47%	-14.24%	-9.63%	7.29%	-19.42%	9.18%	159.94%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판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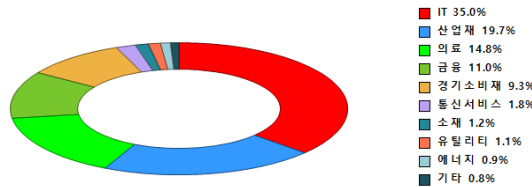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4년 12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6.4	HD현대미포	운수장비	2.9
SK하이닉스	전기,전자	7.2	현대차	운수장비	2.6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3.8	현대로템	운수장비	2.5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3.4	하나금융지주	금융업	2.4
셀트리온	의약품	3.2	HD현대중공업	운수장비	2.4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70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255% (판매 0.45%)
- 클래스 C : 총 연 2.30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805% (판매 1%)
- 클래스 C2 : 총 연 2.175% (판매 1.37%)
- 클래스 C3 : 총 연 2.055% (판매 1.25%)
- 클래스 C4 : 총 연 1.935% (판매 1.13%)
- 클래스 C5 : 총 연 1.805% (판매 1%)

(공통사항)

운용 0.75%,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KOSPI는 전월 대비 2.30% 하락한 2,399.49pt, KOSDAQ은 전월과 동일한 678.19pt로 마감했습니다. 12월 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방향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여기에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어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달러 강세의 긍정적 영향을 받는 조선, 기계, 자동차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향후 국내 정책 변화 가능성이 불거지며 유틸리티, 철강, 통신서비스 등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약세를 나타내며 1,474.1원을 기록했고, WTI 기준 유가는 전월 대비 상승한 70.9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국내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3.8조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투자자는 2.3조원, 개인투자자는 3.0조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 업종의 종목 선택 효과와 조선 업종의 업종 배분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기계와 인터넷 업종의 종목 선택 효과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종목단에서는 강력한 내수에서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25년부터 수출 가속화가 기대되는 파마리서치와 견조한 조선부문 실적에 내년 해양부문 턴어라운드와 해양 방산 수요 증가 수혜가 기대되는 HD현대중공업 및 고려아연 미보유가 긍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이후 환율 급등으로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우려 증가 및 밸류업 정책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조정받으며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약세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매매는 낙폭과대 및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인터넷 중 AI 관련주 및 25년 실적 상향 조정되는 조선 업종의 비중을 확대했으며, 기계 업종에서는 일부 차익실현과 실적 하향 조정이 추가로 예상되는 2차전지 관련 화학 업종의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월 국내 증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내 물가 재반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매파적 통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의 함께 관세 확대 및 중국 견제 등 각종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증시의 탄력적 상승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국내 정치 리스크와 반도체 기업 이익의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 역시 증시 상승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까지 증시가 약재를 상당 부분 반영하며 밸류에이션 매력력이 높아졌기에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낙폭 과대주를 포함해 이익 가시성이 높은 업종과 AI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관심이 지속되며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1월 시장은 국내 정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취임에 따른 일부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예상됩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진입하면서 주춤했던 이익 추경치의 하향 조정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물량 부진,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한 원달러 환율 수준과 같이 KOSPI PE 8.1x, PB 0.8x는 과거 경기사이클 저점 시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외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월 포트폴리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대비 낙폭과대 기업 혹은 실적 개선 가속화 가능 기업들의 비중 확대를 통해서 주가의 정상 회귀 및 변화에 대한 기대감 반영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실적 상향 조정이 되는 소수 업종 중 조선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 비중 대비 높은 비중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역사적 valuation 밴드의 상단을 초과하는 기업은 일부 차익실현하여 상대적으로 valuation 부담이 적은 기업으로 비중 이동, 해양 방산 매출 확대에 가치 재평가가 예상되는 기업 등으로 업종 내 비중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AI value chain과 주가 변동성이 컸던 제약/바이오 업종에서의 종목 선택과 선별적 비중 확대가 초과 성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파 종목들의 선별과 동시에 금리인하 속도가 기존 예상대비 늦춰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 하향 조정되며 방어주 확대와 실적의 하방이 열려있는 기업들의 비중을 최소화하여 연초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 여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 확대와 컨트러버시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초과수익률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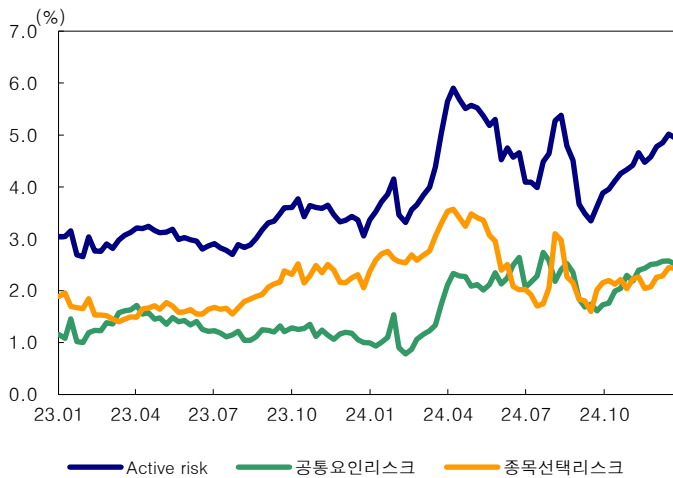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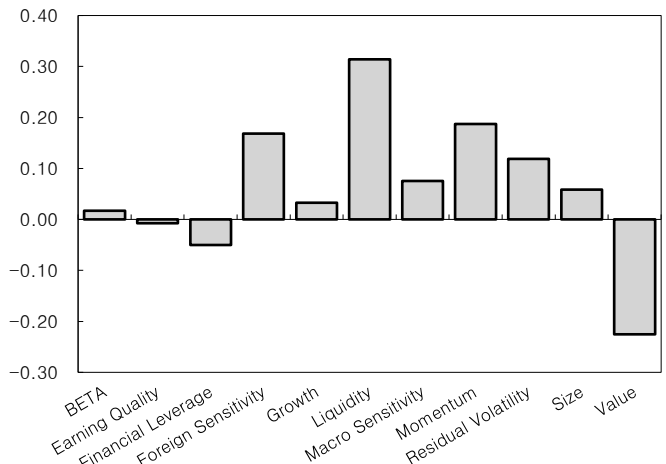
	2024-12-31	2024-11-29
Active Risk <sup>1</sup>	4.97%	4.58%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sup>2</sup>	2.54%	2.51%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1.45%	1.48%
- 섹터 리스크 기여도	1.08%	1.03%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sup>3</sup>	2.43%	2.07%
베타	0.87	0.88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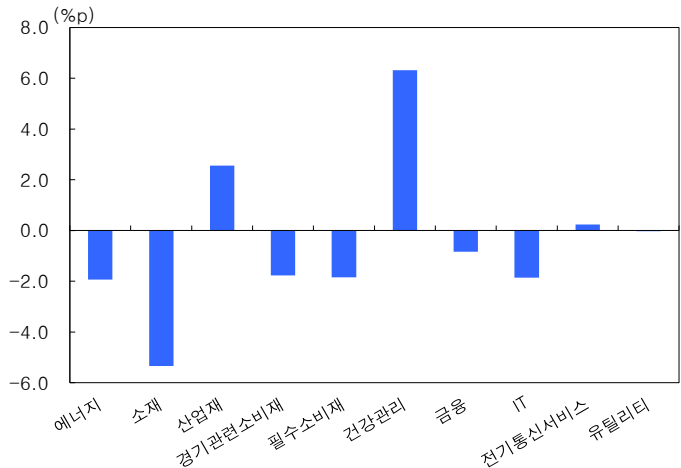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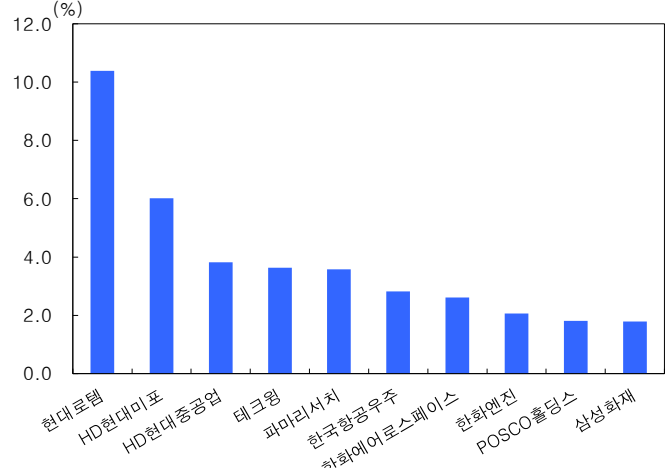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11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2월말 현재, 업종일등ESG증권모(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4.97%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4개 종목 증가하여, 81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경기관련소비재', '소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전기통신서비스', '산업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1월말 기준으로는 'HD현대중공업'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테크윙'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